

사슴벌의 자가절각

야생동물병원장 성 유 석

가축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중 사슴은 가장 질병에 강하며 사육하기에 쉬우며 경제성에 비추어 소득이 매우 높은 동물이다.

사슴의 수명은 사슴의 종류와 사육방법에 따라 다소의 차는 있으나 자연상태 보다는 오히려 우리 인간이 보호사육하므로써 더 많은 삶의 수명을 영유할수 있다고 보겠다.

반면 숫사슴의 경우 오히려 뿔(녹용)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옛날 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한방계의 영약으로 인하여 매년 격는 뿔(녹용)절각이라는 시련 때문에 20년-25년 수명이 10년의 수명을 지속하기에 매우 어려운 난제라 보겠다.

1986년도 사슴 사육 총두수를 5-6만두로 추정하여 암수 비율을 4:1로 보았을 때 1만두의 숫사슴이 사육되며 매년 암수 20-25%의 증가율과 비교하여 숫사슴의 폐사를 10-15%는 암수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보겠다. 이는 오직 위생적인 사육 관리만이 타개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겠다.

1) 사슴벌의 절각시기

사슴벌(녹용)의 채취시기는 사슴의 품종과 연령과 영양 및 기후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대형인 엘크는 3월하순이 되면 낙각이 되어 새 순이 나오는 70일 내에 절각하면 양질의 녹용을 채취 할수 있다.

중형인 적록과 순록은 3월 초순 낙각이 되며 엘크와 같은 일정에 맞추어 절각하면 된다.

시일이 경과 할수록 각질화 되며 순록의 경우 뿔의 모양이 손바닥 모양으로 변화하게 된다.

수록(물사슴)은 사슴 중에 제일 빨리 자라 절각하게 되며 소형인 꽃사슴은 종류별 차이에 따라 4-6월 낙각이 시작되어 5-8월 절각하게 되며 더 늦은 사슴도 있다.

사슴의 낙각시기와 절각시기

순위	사슴종류	낙각시기	절각시기
1	수록(물사슴)	1-2월	4-5월
2	적록	3-4월	5-6월
3	엘크	3-4월	5-7월
4	꽃사슴	3-6월	5-8월

2) 절각을 위한 보정방법

가) 함정식 보정방법 : 소형 및 중형 사슴에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통 꽃 사슴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시설이 잘 되고 다루는 사람이 잘 훈련된 농장에서는 대체로 무난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단점은 갑자기 사슴을 함정에 떨어뜨림으로서 심장 위장 비장등 내부 중요장기에 심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상향식 보정방법 : 이 방법은 재래식 방법으로 로-프나 밴드를 이용하여 사슴의 배와 가슴을 떠 받치며 다리를 땅에서 올려 보정하는 방법으로 결점이 많을 뿐 아니라 또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며 사슴의 가슴과 배에 심한 압박을 가하게 되므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다) 포획망에 의한 보정방법 : 이 방법은 절각장이나 치료용 격리실을 설치 못한 사슴농장에서 실시하며 큰 망을 이용하여 사슴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사슴이 높이 뛰어 철망에 사슴몸이 부딪쳐 타박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여야 한다.

라) 마취기구를 사용하는 방법 : 마취총은 야생의 동물을 포획할때 혹은 수렵장에서 사슴을 잡을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절각 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주의는 동물의 개체와 체중

에 따라 마취약의 양이 조절되어야 하므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 실패하는 일이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래 마취총은 원거리에서 동물을 쏘아 마취를 시켜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장의 소규모로 인하여 근거리에서 쏘게 되므로 탄알이 근육에 깊이 박혀 심한 염증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주의를 해야 하며 또한 강력한 근 이완제를 사용해 짧은 시간에 쓰러지는 경우의 이로운 점은 있으나 대부분의 농장이 좁고 급경사가 심하며 예리한 돌과 나무등이 있어 갑자기 마취가 되어 쓰러지는 경우 체중에 의한 중압으로 흉부위에 심한 타박상과 내출혈등 쇼-크에 의한 폐사가 크므로 이 또한 주의를 해야 한다.

3) 마취약

사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취약품으로서는 렘폰 (XYlagine), 석시-코린 (Succinylchorinechlorde), 케타민 (Ketamine)을 들수 있다.

근자에 대형 사슴인 엘-크에 사용하는 석시-코린 크로라이드 (Succinylchorine chloride)는 인체에 사용하는 마취약으로서 이는 유-럽, 미국, 아프리카등 여러 나라에서 야생동물 포획을 위하여 신경 근육 차단제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석시-코린은 심장과 호흡기능에 이상이 있는 동물은 치명적이 되므로 빨리

쓰러지며 속히 회복하는 장점에 비추어 10% 이상의 폐사률은 전문 수의사 이외의 사용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참고 사슴 체중 1kg당 0.1mg - 0.18mg 석시 - 코린 사용)

4) 사슴뿔(녹용)절각시 마취제 사용에 유의할점

사슴농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부루-건 혹은 마취총은 수의사의 진료용으로 개발된 기구다.

근자에 와서 많은 수의약품의 남용과 수의사의 처방없이 마구사용 하므로 많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점점 크게 대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 형사사건이 종종 화재가 되어 오고 있다.

숫사슴의 연령 증가와 녹용 채취에 의한 다량의 혈액 채취는 계속 숫사슴의 폐사를 증가하여 줄 것으로 간고되며 주위환경의 오염과 사슴의 주위환경 적응은 질병의 다발과 함께 더욱더 폐사률의 증가를 가일층 가증할 것으로 확신한다.

사슴은 우리나라의 경우 녹용 채취를 하는 고가 동물로 뿔(녹용)을 절각하기 위해 10의1이라도 희생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몹시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예를 들어 석시 - 코린을 사용하였을때

1. 젊은 사슴보다 나이먹은 사슴
2. 심한 운동을 한 사슴
3. 마취약을 제 투약한 사슴

4. 좁은 사육장에서 사육한 사슴

5. 기온이 몹시 높은 경우

1-5는 각별히 주의를 요해야만 된다.

5) 절각에 필요한 기구 및 약품

마취제에 의한 보정으로 절각을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제 기구를 필요로 한다.

1. 외과 톱
2. 외과 가위 및 지혈감자
3. 압박 고무줄 및 보정끈
4. 붕대 및 탈지면
5. 지혈대
6. 색소 살균 소독재
7. 기타 (포획망 약품)

절각이 끝나면 사슴을 풀어주기전 외상 혹은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처지를 반드시 다음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1. 마취약의 신속 배설을 위한 : 강심뇨제
2. 절각된 조직의 화농을 예방하기 위한 : 항생제
3. 약품의 과민성 및 특이체질 예방 위한 : 항히스타민제
4. 위 기능 항진제 및 고창증 예방약
5. 기타 약품

을 투약 하여야 한다.

결 론

점차 증가하는 사슴두수와 병행하여 사슴뿔(녹용)을 절각하기 위한 비 전문적인 의료행위와 마취약 및 약품의

25 페이지계속